

2024

2024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한문서예	한시	수채화	민화
한글서예	고전	한국화	인두화

| 전시기간 | 2024. 12. 03.(화) ~ 12. 05.(목) (3일간)

| 전시장소 | 양양문화원 1층 전시실

| 후원 | 양양군   양양군의회

2024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한문 서예
한글 서예
한 시
고 전

수 채 화
한 국 화
민 화
인 두 화

문화학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이 길었던만큼 상대적으로 가을이 짧았던 한 해였습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기후와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힘든 과정을 잘 마치고 수료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김진하 군수님과 이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향토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학교 수강생 300여명 중 3분의 2가 양양이 좋아서 양양으로 이주해 오신분들입니다.

이렇게 귀촌한 분들이 양양을 좀더 깊이 알 수 있게 하기위해 수강생 분들을 대상으로 향토문화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과 지역고유문화 소멸위기를 향토문화의 진흥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강좌의 개설로 군민 모두와 함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문화가 꽃피는 양양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수강생들을 위해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지도 강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도 이제 카렌다 한 장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양문화원장
박상민

한문서예 교실



• 지도강사 : 함연호

- 수 료 자 :
- | | | | | | | |
|-----|-----|-----|-----|-----|-----|-----|
| 김동선 | 강진상 | 박명숙 | 송진영 | 오국성 | 이영관 | 임경수 |
| 전진찬 | 정용환 | 조용해 | 홍의태 | 김기송 | 김덕주 | 남경순 |
| 박상울 | 박순희 | 변대환 | 신동우 | 신성현 | 오경환 | 윤지환 |
| 이광우 | 장명한 | 전성우 | 전옥병 | 최승호 | 최용일 | |

我是通翁瘦骨儼君如歸
 暫下遼天相逢一笑天應
 許莫把襄陽較後前

書退溪先生梅谷詩 青松咸衍鎬

퇴계선생시



지도강사
 青松 咸衍鎬

黃梅細雨濕輕煙
簾外幽禽喚夜眠
撩亂東隣多女伴
綠楊陰裏送秋千

錦三宜堂詩一首
牛步金基松



삼익당시

看山靜坐笑浮生長
伴閑雲弄月朋臨鏡
可慚惟雪髮對花鞋
禁是風情

錄松谷先生詩一首
牛步金基松



운곡선생시



牛步 金基松

穩坐忘歸對水流樹
陰溪影別藏秋野禽
亦感賢侯德隔岸相
呼勸久留

錄松谷先生詩一首
峴泉金惠柱

매월당선생 대관령시



峴泉 金惠柱

春陰不散鳴幽禽到
處那堪無我吟拍點
奇觀頻舉目晴川芳
草情難禁

錄松谷先生詩一首
魯田朴商律



歲暮寒窓方夜永
任頭不寐寒鴛鴦魂抹雲
淡月成孤夢六向滄
沙向故園

錄萬海先生詩一首
魯田朴商律



만해선생시

운곡선생시



魯田 朴商律

生年不滿百 常懷千歲憂

癸卯年夏季 琴雅邊大煥

만해 한용운 심우시 10수



琴雅 邊大煥

此物元非空處尋山中但覺白云深絕壁斷崖杳不得風生雨須龍吟
物在滿山凡幾多回頭又問是甚麼忽省披州踏花跡別經何須更他覓
至今何必更聞聲猶自云踏雪不離一步立看彼毛角元非別成
已見更疑不得渠擾毛心難除頓覺其害已在手大似元斗不離居
飼養馴致兩加身恐彼野性逸入蒼片時不待羈絆萬事於今必須人
不費鞭影任歸家溪山何妨隔煙霞斜日吃夷長程州春風未見亦入牙
自任逸事水溪山綠如青山白日間雖終已在桃林野片夢猶在小窓間
北徒色空亦空已甘塞處又各通截塵不立依天劍肯許千秋里祖宗
三明六通元非功何似美盲溪如聾四首毛角未生時春來依舊百花紅
入泥入水任玄來笑笑端不盈腮他日茫茫苦海裏更教蓮花火中開

丙申夏書范海大禪師尋牛詩十首琴雅邊大煥

한나라 악부인 서문행

郵亭寒夜長孤客耿無夢
 鷹過旅情多雞鳴歸意動
 功名後自勞經術終底用
 歲晏芳樹凋良辰誰與共

錄陽村先生詩一首
 忠岩申東禹

양촌선생시

梨花落盡啼米雨黃
 鳥飛鳴何處却春欲
 暮時君又去閑愁離
 恨共消魂

錄象村先生詩一首
 忠岩申東禹

상촌선생시



忠岩 申東禹

畫樓東畔俯蓮池
 酒來看急雨時
 即傾歌器侶聲喧
 厭淨襟宜
 歸退溪先生詩一首
 光亭吳庚煥

퇴계선생시

野人自愛山中宿
 是為洪丹井西庭
 有箇長松樹夜半
 規求上帝
 環顧況詩光亭吳庚煥

고황선생시



光亭 吳庚煥

長庚秋山色更濃擬
將圖畫寫真容霜林
落葉渾飛盡依舊青
青澗底松

錄松谷先生詩
裕哲尹智煥



운곡선생시

半壁孤燈獨不眠蒼
葭玉露曲江邊心懸
故國傷多病跡滿殊
鄉感逝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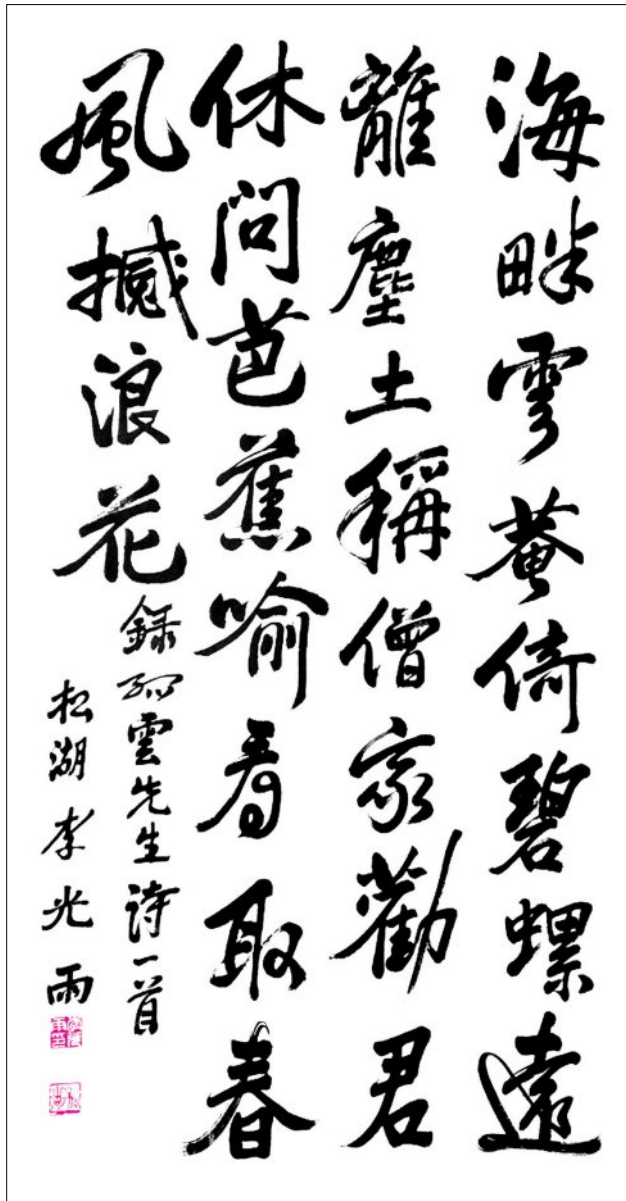
錄勉庵先生詩二首
裕哲尹智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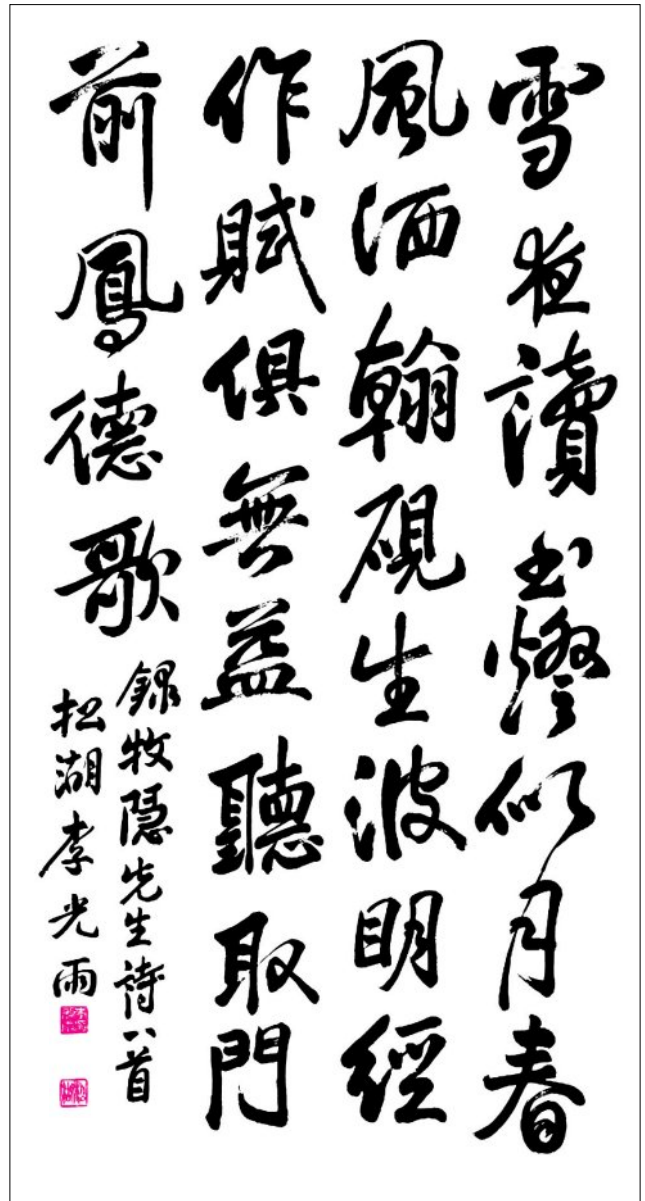
면암선생시



裕哲 尹智煥



고운선생시



목은선생시



松湖 李 光 雨

新羅昔曰
說來從碧
海中央齒
頰唇歌夜
月鵲肩紫
袖舞春風

鍾益齋先生詩一首
峴齋崔容一

익제선생시

遍盡長橋
回首屢回
滿懷春思
浩難裁水
邊細草飛
黃蝶樹樹
閑華隔岸
開

鍾益齋先生詩一首
峴齋崔容一

운곡선생시



峴齋 崔容一

한글서예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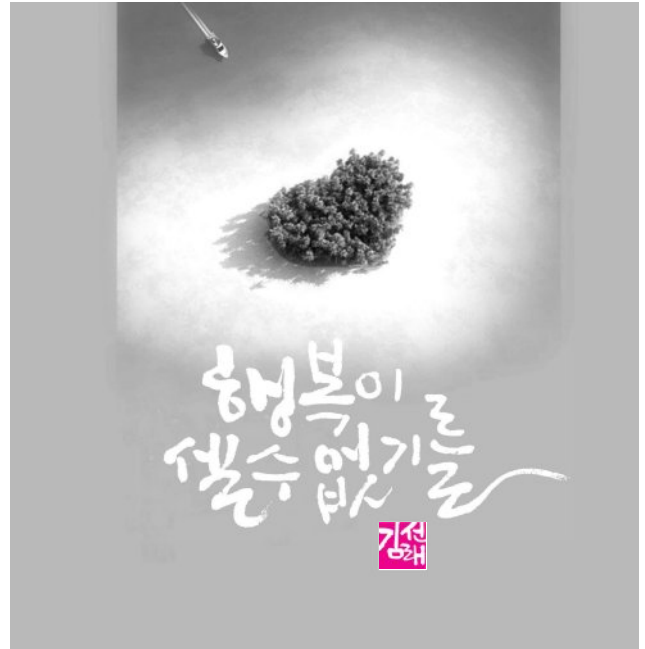


• 지도강사 : 김광희

• 수료자 : 권하정 김선래 김순희 김 신 김종화 김주일 김주희 백동수
 석경숙 연현숙 이기순 이재승 이현숙 전선주 전성호 최형우
 김순자 김영순 김탁영 노복현 로재창 박경숙 박상혁 심현순
 양마루치 이경숙 이주옥 장영랑 조일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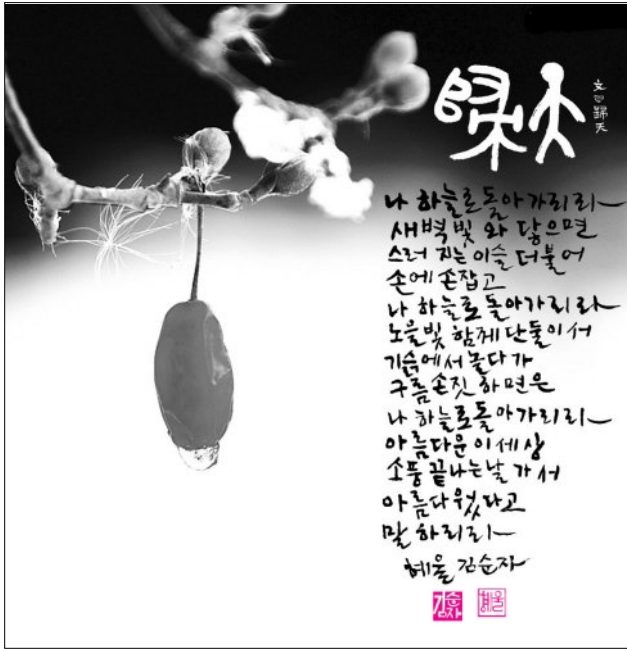
사랑



행복



혜을 김 선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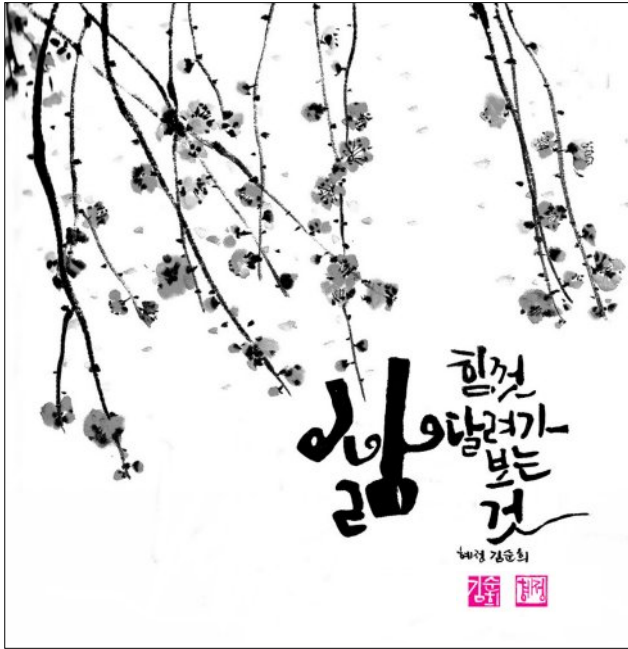
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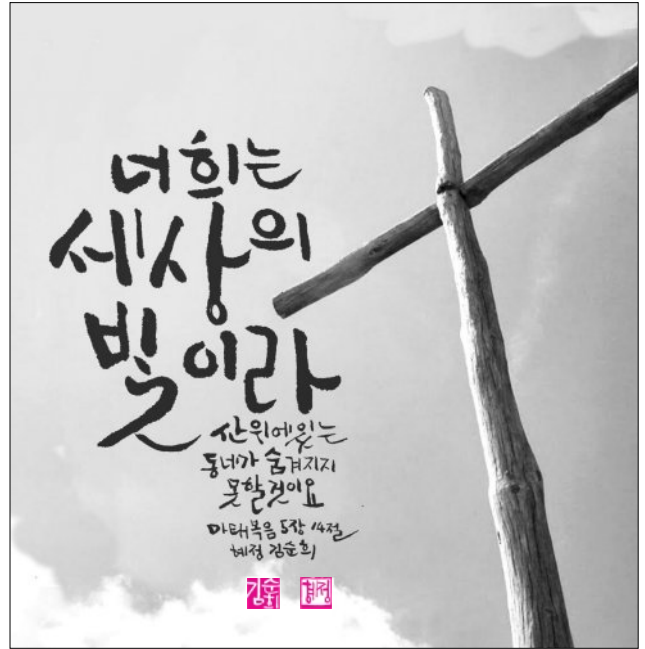
그런 사람



혜을 김 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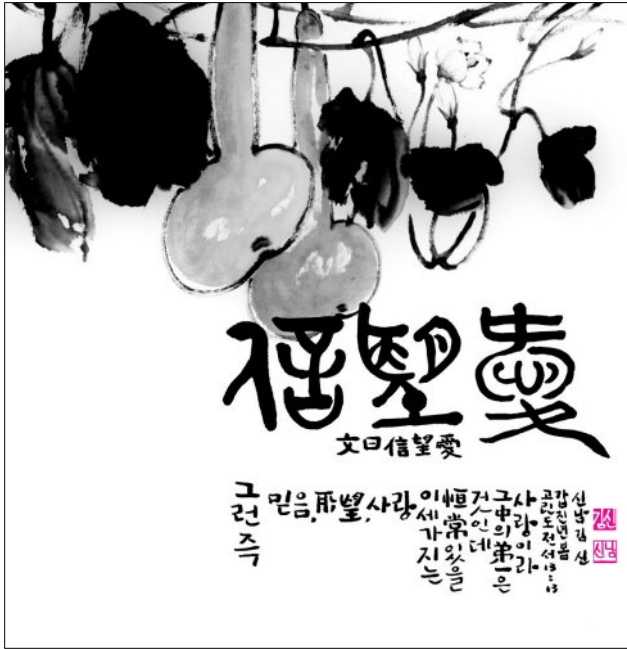
삶



세상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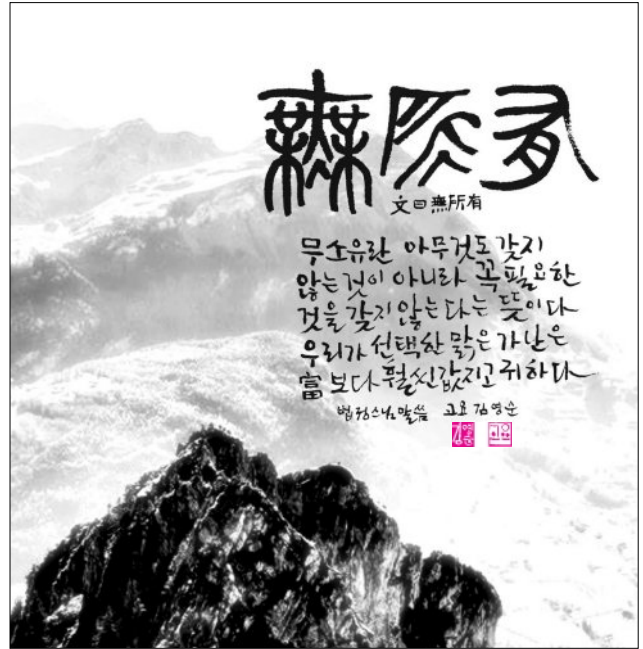


해정 김 순 희





겸덕



무소유



고요 김 영 순



덕



행복



김 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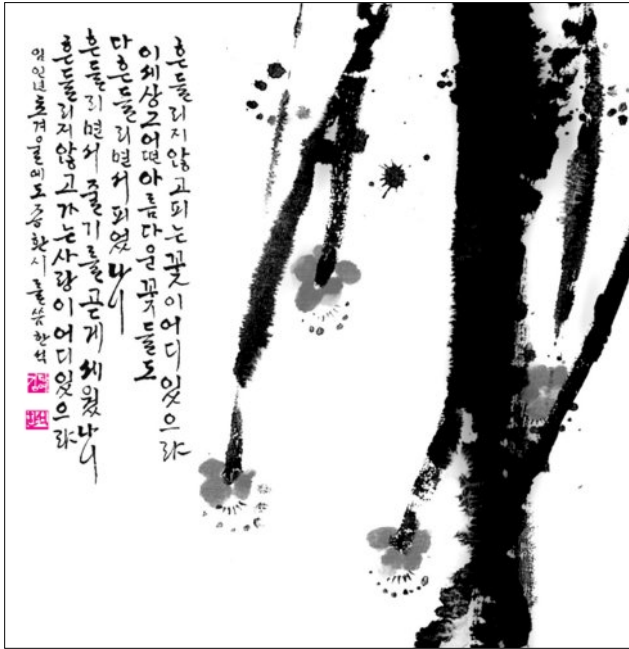
松翠荷香

첫닭우는소리에청양을떠나니 밝아오는하
늘빛이푸르고도쓸쓸하네 잠자던 새들은사
람피해숨으로들고 굶주린 사슴은 언덕너머
서소리 지르네 북두칠성은 은하수 북쪽으로
차츰 희미해지고 달은 이제 눈 덮인 산서쪽에
지네 길은 생각이어찌 끝나라 시 읊다 보니 골
짜기 지나는 것도 몰랐네 운곡시 해림김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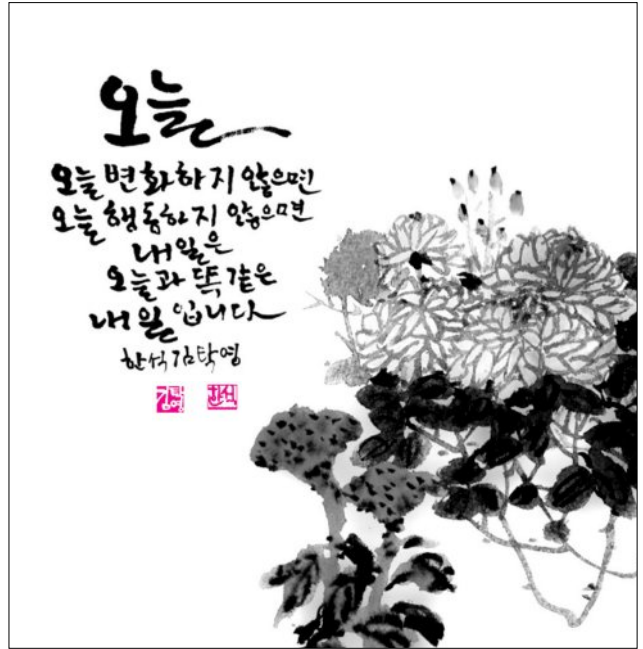
운곡선생시



해림 김 주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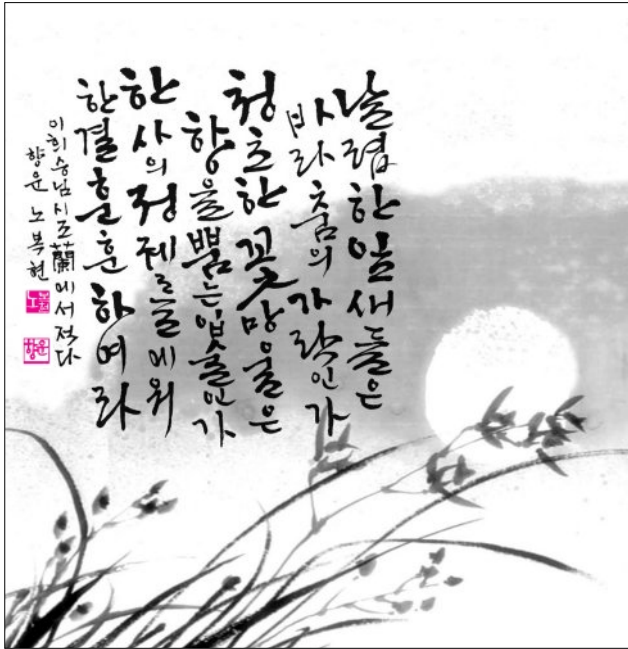
꽃



오늘



한석 김 탁 영



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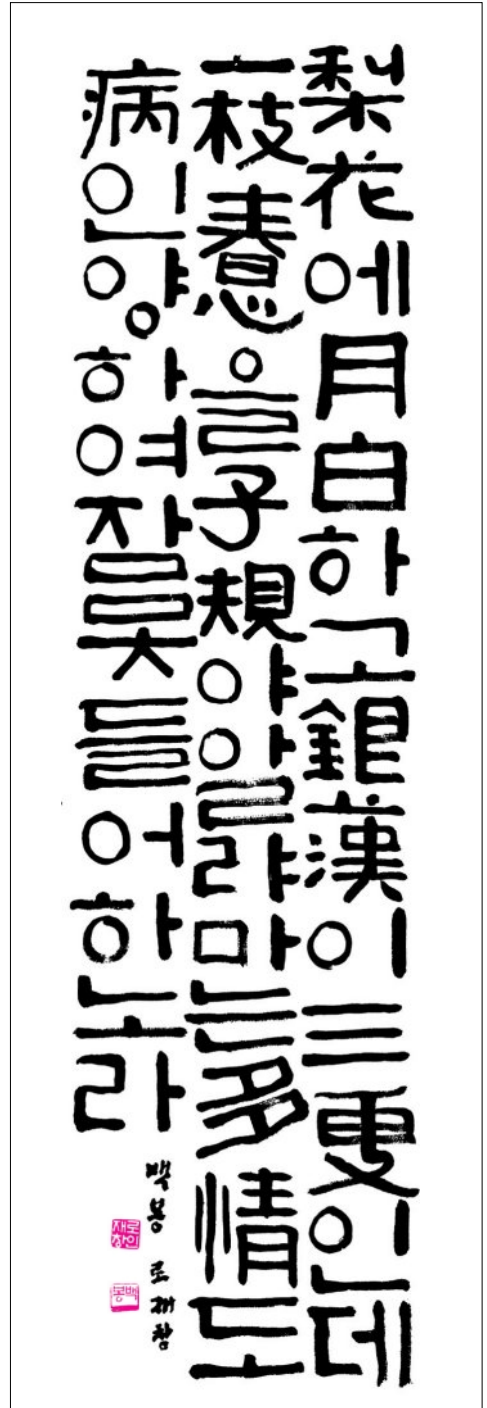
萬福

향운 노복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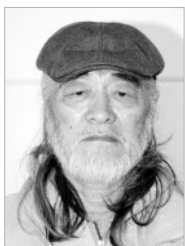




信望愛



옛시조



백봉 로재창

아하 반야 바라밀나심정

관자재보살행상반야바라밀나시
 조전보승게공도일체고액사리자
 색불이공공불이색색즉시공공즉
 시색즉시공행식역부여시사리자
 제법공상불생불멸불즉무정무중
 불강시고공중우색우상행식우
 안이비철신의우색청향미촉법우
 안제내지우의식제우명역우우
 명진내지우노사역우노사진우고
 집멸로우역우득이우노고고보
 리살라외방야바라밀나고심고가
 애극가애고우공로원리정도공
 상극정멸반상체불의반야바라
 밀나고득아촉나라삼박삼보리고
 지반야바라밀다시내신즉시내명
 즉시극상즉시우등즉능제일체
 고진실불허고철반야바라밀나
 즉철즉활아제아제바라아제바
 능아제크지사바하난비박정숙



별

반야심경



단비 박 경 숙

가을이 깊어갈수록
 푸르던 나뭇잎이
 노랗게 변해가고
 바람이 차가워
 가을이 깊어갈수록
 푸르던 나뭇잎이
 노랗게 변해가고
 바람이 차가워
 가을이 깊어갈수록
 푸르던 나뭇잎이
 노랗게 변해가고
 바람이 차가워

이항이십사년호가을을에운곡선생시로쓰심 청경 박상혁

운곡선생시(판본체)

가을이 깊어갈수록
 푸르던 나뭇잎이
 노랗게 변해가고
 바람이 차가워
 가을이 깊어갈수록
 푸르던 나뭇잎이
 노랗게 변해가고
 바람이 차가워
 가을이 깊어갈수록
 푸르던 나뭇잎이
 노랗게 변해가고
 바람이 차가워

운곡선생시(궁체)



청경 박상혁



달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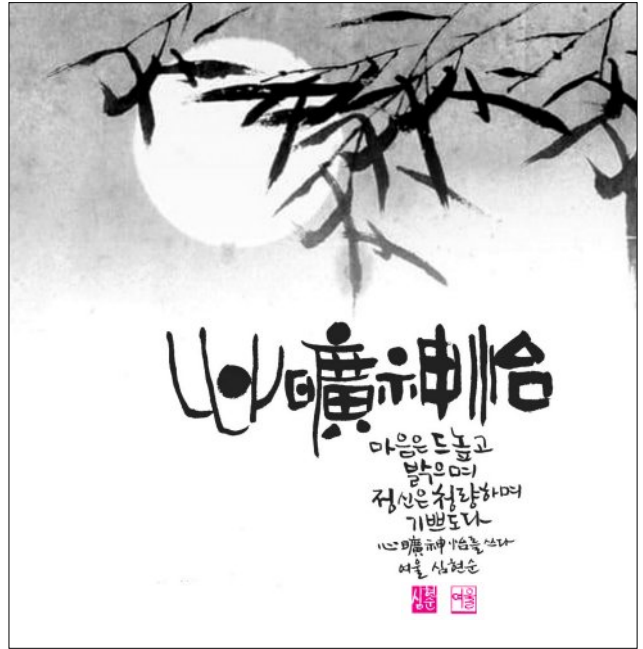
운곡선생시



예림 석경숙



반아심경



心廣神怡



여울 심 현 순



송취하향



행복한날



덕현 양마루치

漆鎖赤霞楓葉嶺平鋪白雪蒺花洲
菊釐寂寞金葩嫩唯有東籬獨未秋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Dr. Yoko Kikuchi, a woman with short dark hair, smiling, wearing a patterned scarf and a dark jacket.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희망이 샘솟는 사람
에비슨이 밝힌 말
은별 이기순



34 ●● 2024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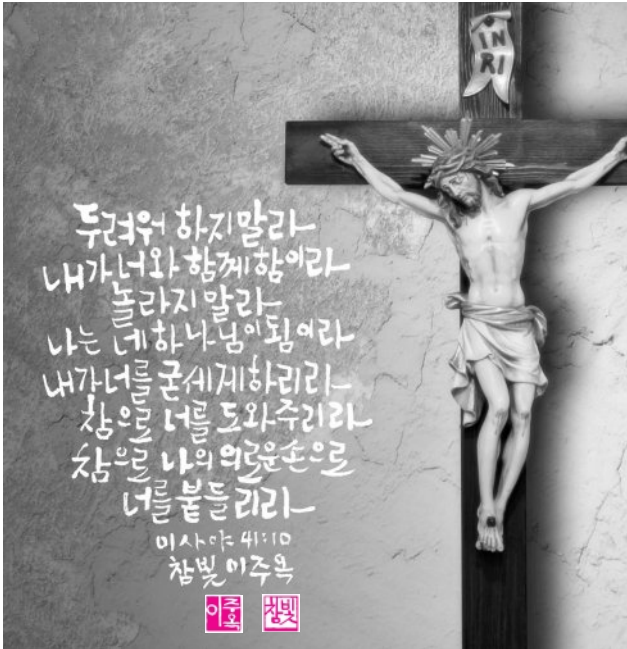
기쁨



평심화기



한희 이재승



이사야서



행복한날



참빛 이주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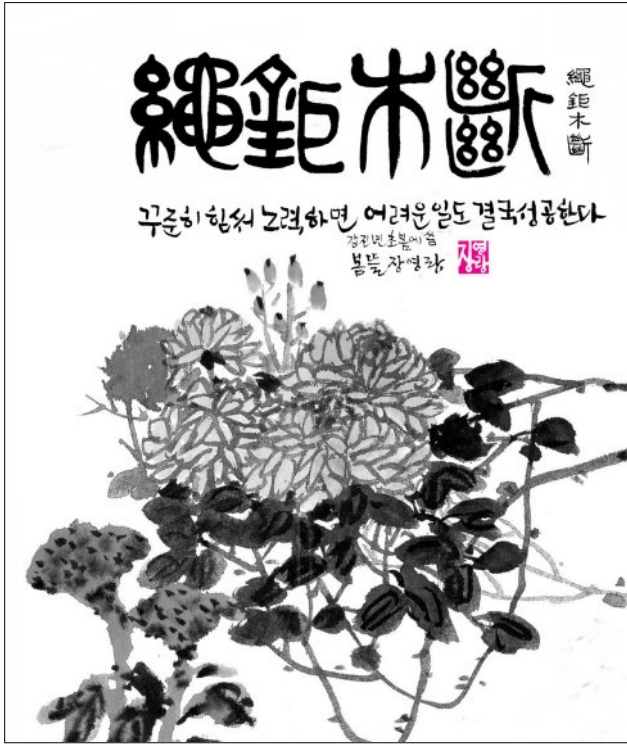
법정스님말씀

靜望無為萬慮忘湛然空寂是眞常這般消
 息誰能說千頃澄潭帶月光
 天이라.말은뜻이달빛을띠었네
 이경지의수식을두가말할수있으랴
 달연하고정한것이바로천상일세
 내영이찾아모든생각을다잊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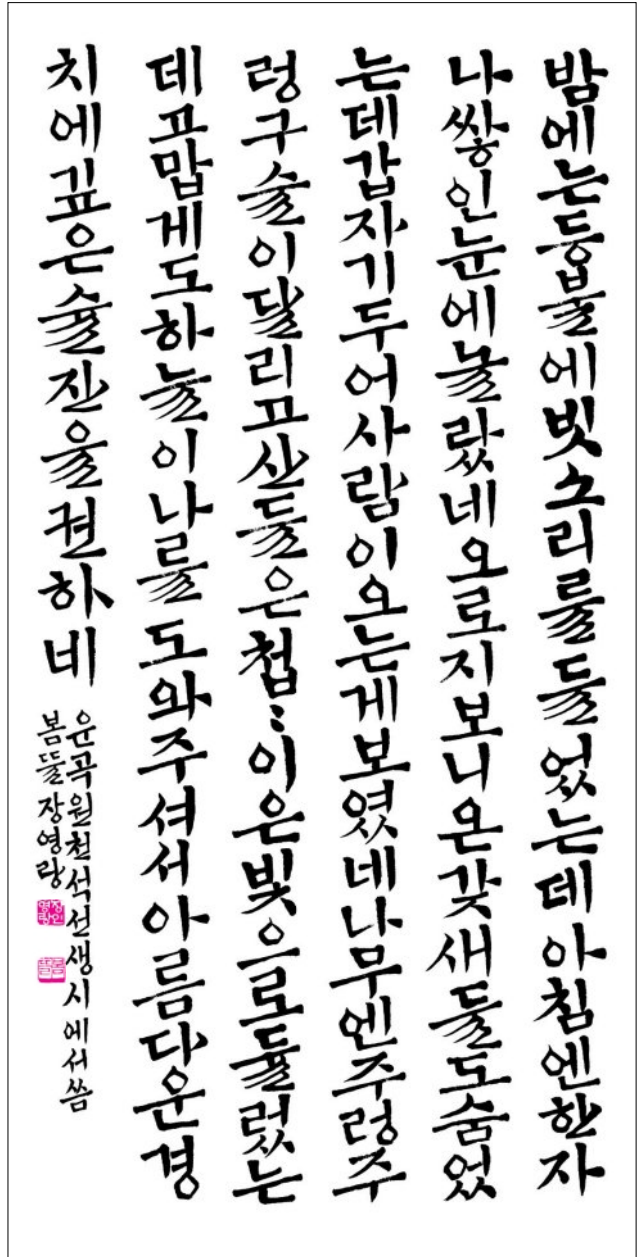
운곡선생시



하정 이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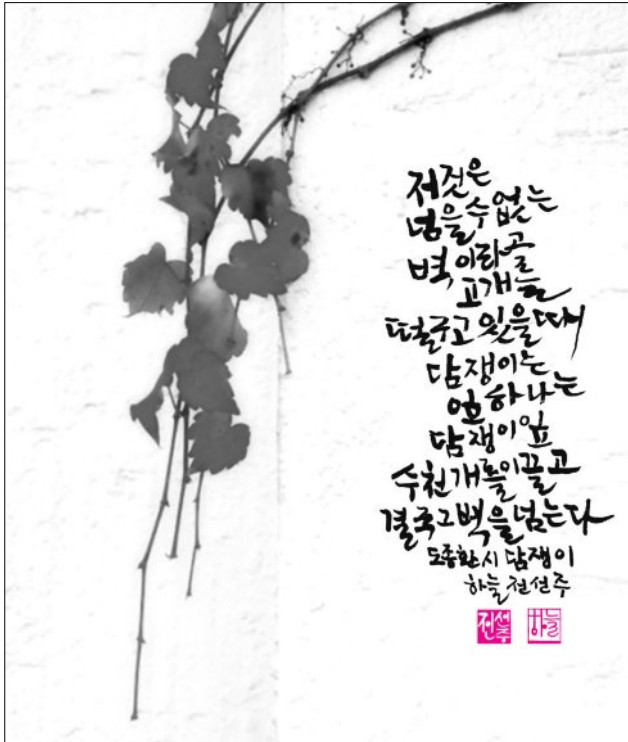
繩鉅木斷



운곡선생시



봄들 장영랑



담쟁이



운곡선생시



하늘 전 선 주



법고창신



운곡선생시



제이플 전 성 호

거양이 몸이 다련해 양이 수잇나 행면이
마음은 다련해 양이 수잇다 사상은 뜻이
관음의 큰바늘로 행부의 씨실과 물행의 날
실을 꿰는 것과 같다. 종은글을 쓰다 슬의조일배

좋은글

외로이 살면서 무엇을 걱정하랴 만가일이 되
자 더욱 쓸쓸해지네 이리 너머 거인 빛이 먼
데 귀뚜라미 옆에 밤잠이 깰구나 시냇가 소나
무구만 빛이 빛이던 너야만 만가 화가 구려면
너니 오기 시작하여 절절히 빛나다 비마니 맑아
노니 양한가 잇네 양구선생시 슬의조일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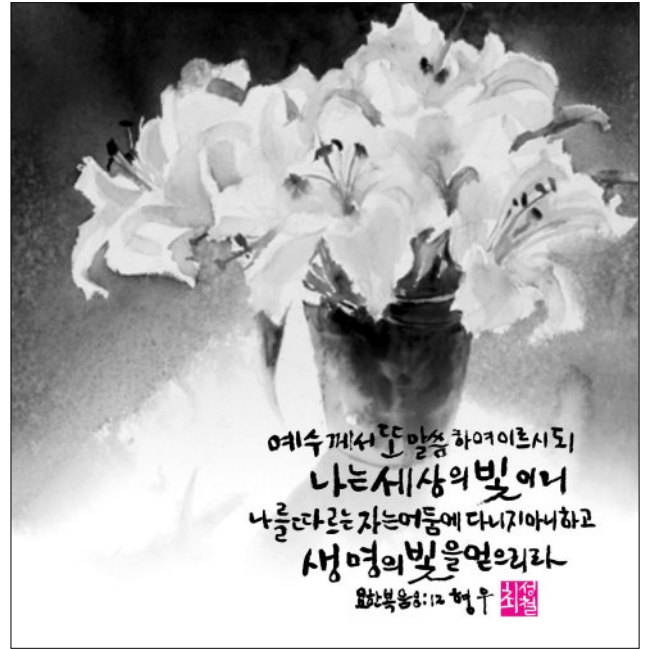
운곡선생시



슬의 조일배



방원합도



성경말씀



형우 최 성 철

한시 교실



• 지도강사 : 이종우

• 수료자 : 김경일 김기송 김덕주 김무풍 김윤래 김준호 김형래
박상형 양동창 조현숙 최종학 추종삼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赤卒徘徊報上秋	(적졸배회보상추)	배회하는 고추잠자리가 가을을 알렸으니,
襄陽素節海東頭	(양양소절해동두)	양양의 가을 절기는 해동에 으뜸이니라.
楓粧雪嶽朝霞繞	(풍장설악조하요)	단풍으로 장식한 설악산엔 아침노을 돌렀는데,
雁探梅湖夕露流	(안탐매호석로류)	기러기가 찾아든 매호에는 저녁 이슬 내리네.
滿湖鰾魚調祝祭	(만소연어조축제)	가득 오른 연어의 축제는 조화로운데,
貴生松栢活歡遊	(귀생송이활환유)	귀한 송이로 활기 찾아 즐겁게 노누나.
坊坊曲曲金剛色	(방방곡곡금강색)	방방곡곡이 금강석 같은 색이라,
韻致盈眸筆豈收	(운치영모필기수)	눈에 가득한 운치 필로 어찌 거두리.



지도강사

又泉 李鍾寓 (우천 이종우)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襄陽勝地吉祥秋	(양양승지길상추)	양양의 승지에 상서로운 가을을 맞으니
祝祭名聲滿路頭	(축제명성만로두)	축제를 빛내는 명성이 노두를 채우도다.
松楸神山採取樂	(송이신산채취락)	송이 나는 신산에서는 송이 따며 즐기고
鱧魚漢水溯源流	(연어한수소원류)	연어는 남대천의 수원 찾아 올라가네.
梅湖白鷺飛翔伴	(매호백로비상반)	매호의 백로들은 짝지어 비상하고
五色丹楓玩賞遊	(오색단풍완상유)	오색에서는 단풍을 완상하며 노니는구나.
天惠風光存保護	(천혜풍광존보호)	천혜의 풍광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였으니
自然祕境感難收	(자연비경감난수)	자연의 비경을 다 감상하기 어렵구나.



(社)韓國漢詩協會襄陽支會長
南岡 梁東昌 (남강 양동창)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襄陽瞻望是高秋	(양양첨망시고추)	양양의 이 높은 하늘을 바라보니
秀麗風光可點頭	(수려풍광가점두)	수려한 풍광이 최고라 할 만하네.
菊吐濃香幽遠播	(국토농향유원파)	국토의 짙은 향기는 멀리 퍼지고
樹粧爛色彩鮮流	(수장란색채선류)	수장 난색에 고운 빛깔 흐르네.
遍峰紅錦孰承賞	(편봉홍금숙승상)	붉은 비단을 봉우리에 펼치니 누군들 감상하지 않을까
滿壑丹楓賓陟遊	(만학단풍빈척유)	단풍 가득한 골짜기에 객은 오르며 노네.
觸目無非如畫幅	(만학단풍빈척유)	눈에 닿는 것이 화폭 아닌 것 없는데,
詩情逸興豈難收	(시정일흥기난수)	일흥과 시정을 어찌 거두랴



桂堂 金慶一 (계당 김경일)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紫紅雪嶽促云秋	(자홍설악촉운추)	울긋불긋 설악이 물들어 가을을 재촉하니
勝景襄陽四海頭	(승경양양사해두)	양양의 빼어난 경치는 천하에 으뜸이로세.
壑鑄錢楓颺落漫	(학주전풍양락만)	주전골짜기 단풍은 흐드러지듯 날리어 떨어지고
坪耕地稻舞連流	(평경지도무연류)	도평 농경지 벼 이삭은 바람에 춤추듯 흐름을 잇는구나.
路邊市肆人波衍	(노변시사인파연)	길가 장터엔 사람의 물결이 넘치고
堤外街園幼子遊	(제외가원유자유)	제방 넘어 공원엔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구나.
餘裕豐饒歌擊壤	(여유풍요가격양)	여유롭고 풍요한 가을 격양가를 노래 부르고
風光墨客筆難收	(풍광묵객필난수)	묵객은 풍광에 취해 글로 표현하기 어렵구나.



牛步 金基松 (우보 김기송)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襄陽風景漬高秋	(양양풍경지고추)	양양의 좋은 경치 가을을 물들이니
雪嶽丹楓可最頭	(설악단풍가최두)	설악의 단풍은 가히 최고이구나.
郊外黃波禾穗濫	(교외황파화수염)	교외에는 황금물결에 벼이삭 출렁이고
江邊白浪荻花流	(강변백랑적화류)	강변의 흰 물결에 억새꽃이 흐르네.
枬香祝祭騷人樂	(이향축제소인락)	열리는 축제에 송이 향기 맡으며 소인들은 즐거워하고
情調歡迎賞客遊	(정조환영상객유)	환영하는 음악 가락에 상객들은 노니네.
鄉里山川如彩畫	(향리산천여채화)	고향의 산천은 천연색 그림 같으니
眺望我亦感難收	(조망아역감난수)	바라보는 나 역시 감탄을 거둘 수 없구나.



岷泉 金 惠 柱 (현천 김덕주)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襄陽秀麗野山秋	(양양수려야산추)	수려한 양양에도 들과 산에 가을이 오네,
丹楓錦繡閣岸頭	(단풍금수각안두)	각 언덕 머리까지도 단풍으로 수 놓았네.
稻穗金波香氣動	(도수금파향기동)	벼 이삭 파도치니 향기가 움직이고
蘆花銀髮彩霞流	(로화은발채하류)	갈대꽃 은발이 노을 진 채색으로 흐르네.
吟風弄月騷人樂	(음풍농월소인락)	소인들은 음풍농월하며 즐기고
鼓瑟彈琴客子遊	(고슬탄금객자유)	객자들은 악기 두드리며 노네.
霜雁啞啞何處去	(상안옹옹하처거)	서리 맞은 기러기 옹옹 대며 어디로 가나
露蛩唧唧夜分收	(로공즉즉야분수)	이슬 맞은 귀뚜라미 즉즉 대며 한밤중 거두네.



東林 金茂豐 (동림 김무풍)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秋色嬋妍是晚流	(추색선연시만류)	가을빛이 곱고 고운 이 늦가을에
襄陽山野染黃頭	(양양산야염황두)	양양의 산야는 황금빛이네.
稻梁已艷登加溢	(도량이염등가일)	벼와 기장이 이미 탐스러우니 얻음이 넘치고
棗柿皆紅進價流	(조시개홍진가류)	대추와 감이 붉게 익었으니 가격이 기대되네.
楓木松林尋珥樂	(풍목송림심이락)	단풍나무와 송림에서 버섯을 채취하니 즐겁고
蘆花江浦採蓮遊	(로화강포채련유)	노화 강포에서 연을 채취하며 노니네.
商風日暖觀光好	(상풍일난관광호)	따뜻한 가을바람에 관광하기 좋으며
老叟農夫五穀收	(노수농부오곡수)	늙은 농부 오곡 수확하네.



蒼波 金允來 (창파 김윤래)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天高雲白節佳秋	(천고운백절가추)	높은 하늘 흰 구름 절기는 아름다운 가을
勝景襄陽可最頭	(승경양양가최두)	양양의 승경은 가히 최고구나.
谷口巫山楓艷染	(곡구무산풍염염)	무산 계곡에 단풍나무 곱게 물들고
江邊漢水荻鮮流	(강변한수적선류)	남대천 강가의 억새꽃 고운 빛 흘러라
金風律作騷人樂	(금풍률작소인락)	가을바람 읊시 쓰니 시인은 즐겁고
散慮逍遙看客遊	(산려소요간객유)	세상일 잊은 발걸음 관심 따라 즐기네.
四野登豐歡舞偶	(사야등풍환무우)	사방 벌판 허수아비 기쁨 춤추고
濃香柑吐感難收	(농향이토감난수)	진한 솔향 송이 거둘 수 없는 감탄이네.



韻朗 金俊鎬 (하랑 김준호)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襄陽好節採葦秋	(양양호절채심추)	양양의 좋은 계절은 버섯 캐는 가을 절기인데
祝祭松鱧第一頭	(축제송연제일두)	송연 축제가 제일 먼저 열리는구나.
居室朝盤魚灸溢	(거실조반어구일)	거실에 아침 소반에는 연어구이가 넘치고
廚房食卓枅肴流	(주방식탁이효류)	주방에 식탁에는 송이 안주가 흐르네.
市場店鋪商人樂	(시장점포상인락)	시장 점포에는 상인들이 즐겨 찾고
屯峙花園旅客遊	(둔치화원여객유)	둔치 꽃동산엔 나그네들이 노니네.
觀景歡心詩自讚	(관경환심시자찬)	관경하는 기쁜 마음을 시로 자찬하고
森羅萬色畫難收	(삼라만색화난수)	삼라의 만색을 그림으로 난수 하네.



看山 金亨來 (간산 김형래)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天高馬膩節三秋	(천고마이절삼추)	하늘이 맑고 말이 살찌는 삼추 절기에
五色丹楓繞嶺頭	(오색단풍요령두)	오색 단풍이 영마루를 둘렀네.
松栢多生多好樂	(송이다생다호락)	송이가 많이 나니 모두가 즐거워하고
鱖魚滿溯滿欣流	(연어만소만흔유)	연어가 가득 오르니 다들 기뻐하네.
荻花瑟瑟清颺動	(적화슬슬청시동)	억새꽃은 쓸쓸한 바람에 소리 내며 흔들리고
鴻雁嚙嚙碧落遊	(홍안옹옹벽락유)	기러기는 옹옹 울면서 푸른 하늘에서 노니네.
沃野島坪豐稔裏	(옥야도평풍임리)	기름진 도평 뜰에는 풍년이 들었는데
山河淅瀝白雲收	(산하석력백운수)	소슬한 산하에는 흰 구름만 가득하구나.



士川 朴 相 亨 (사천 박상형)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寒天霜落爽迎秋	(한천상락상영추)	한천에서 서리 내려 상쾌한 가을 맞으니
楓染朱紅耀嶺頭	(풍염주홍요령두)	단풍나무 주홍으로 물들어 영마루에 빛나네.
白葦江邊鷗落滿	(백위강변구락만)	흰 갈대꽃 강변에 갈매기 많이 내렸고
黃禾野外雁飛流	(황화야외안비류)	누런 곡식의 야외엔 기러기 날아가네.
鯁魚漢水漁翁樂	(연어한수어옹락)	연어 오른 한수에서 어옹이 즐기고
松栢靈山採老遊	(송이령산채로유)	송이 돋은 영산에선 채노가 노니네.
稀世最高圖勝地	(희세최고도승지)	세상에 보기 드문 최고의 그림 승지
賞人讚嘆眼中收	(상인찬탄안중수)	상인이 찬탄하며 눈 안에 거두네.



瑞潭 崔鍾學 (서담 최종학)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露結爲霜是冷秋	(로결위상시냉추)	이슬 맺어 서리되는 이 차가운 가을에
襄陽勝景展山頭	(양양승경전산두)	양양의 좋은 경치 산머리에 뻗구나.
金風淅瀝蟲聲亂	(금풍석력충성란)	가을바람 스치니 벌레 소리 요란하고
玉露玲瓏雁影流	(옥로영롱안영류)	옥 이슬 영롱하니 기러기 그림자 흐르네.
畝下田翁豐歲悅	(무하전옹풍세열)	들에서 수확하는 농부 풍년에 기쁘고
楓前騷客好題遊	(풍전소객호제류)	단풍 아래 시객은 호제 갖고 노네.
探看處處眞佳境	(탐간처처진가경)	찾아보니 곳곳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인데
讚美觀光興不收	(찬미관광흥불수)	칭송하는 관광객 흥을 거두지 못하네.



冠山 秋 鍾 三 (관산 추종삼)



讚襄陽秋色 (찬양양추색)

宴席騷人燦爛秋	(연석소인찬란추)	시인의 계절, 눈부신 가을이로다.
丹楓五色染山頭	(단풍오색염산두)	오색의 단풍은 온산을 붉게 물들인다.
松林松栢美香滿	(송림송이미향만)	소나무 숲에서 향긋한 송이 향이 퍼지고
梨樹梨珠晧汁流	(리수리주침즙류)	배나무에선 배가 주렁주렁 단물이 흐르니
雪嶽周邊耆婦笑	(설악주변기부소)	설악산 자락 아낙네들 미소 짓고
竹亭隣近老公遊	(죽정인근노공유)	죽도정 부근 동네 어르신들 즐겁다
四方秀麗豐饒實	(사방수려풍요실)	이르는 곳마다 절경이요 결실이니
仙界停留畫不收	(선계정유화불수)	신선이 머무는 듯 화폭에 다 담기 어렵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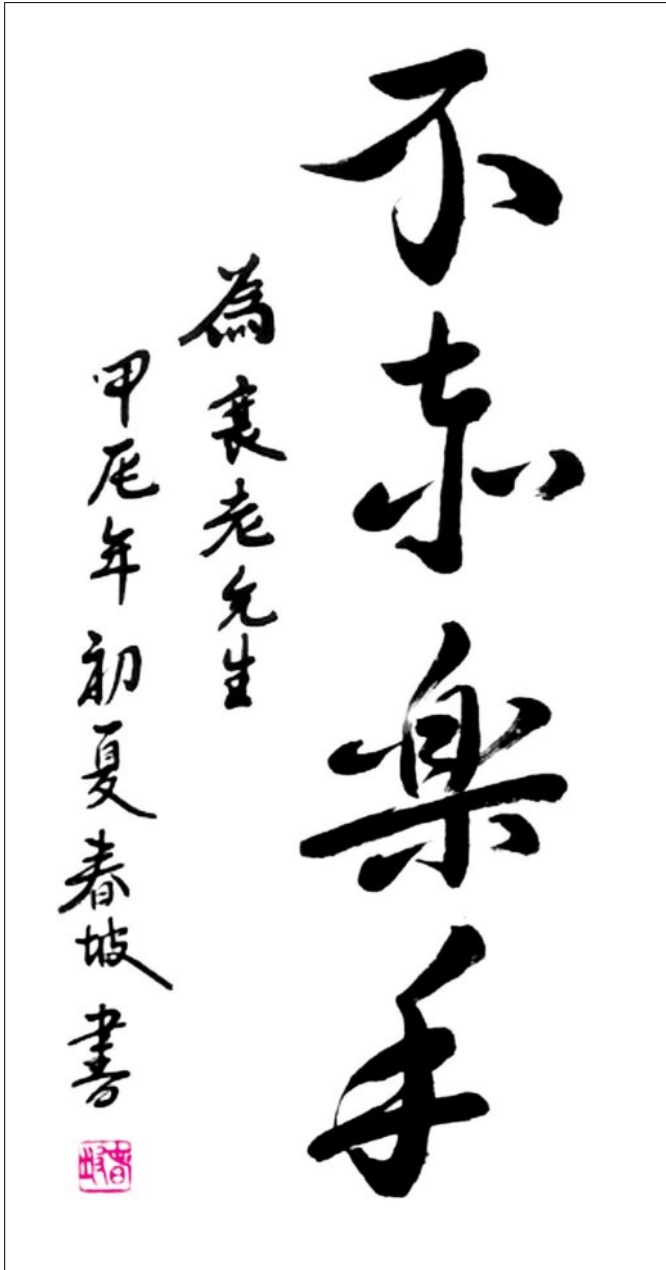
大海 趙賢淑 (대해 조현숙)

고전 교실



• 지도강사 : 최영택

• 수료자 : 김동선 김윤래 김희석 양동창 이근천 전진찬 한상호
 홍창진 황영애



不亦樂乎



지도강사
襄老 崔永澤



與人爲善



青松 金東善

仁者無敵

為蒼坡先生

甲戌年
初夏
蒼坡書



仁者無敵



蒼波 金允萊

論語學而

學而時習

庚子晚秋金會爽

學而時習



金會爽

地利不如人和

為南岡先生

甲戌年初夏春坡書



地利不如人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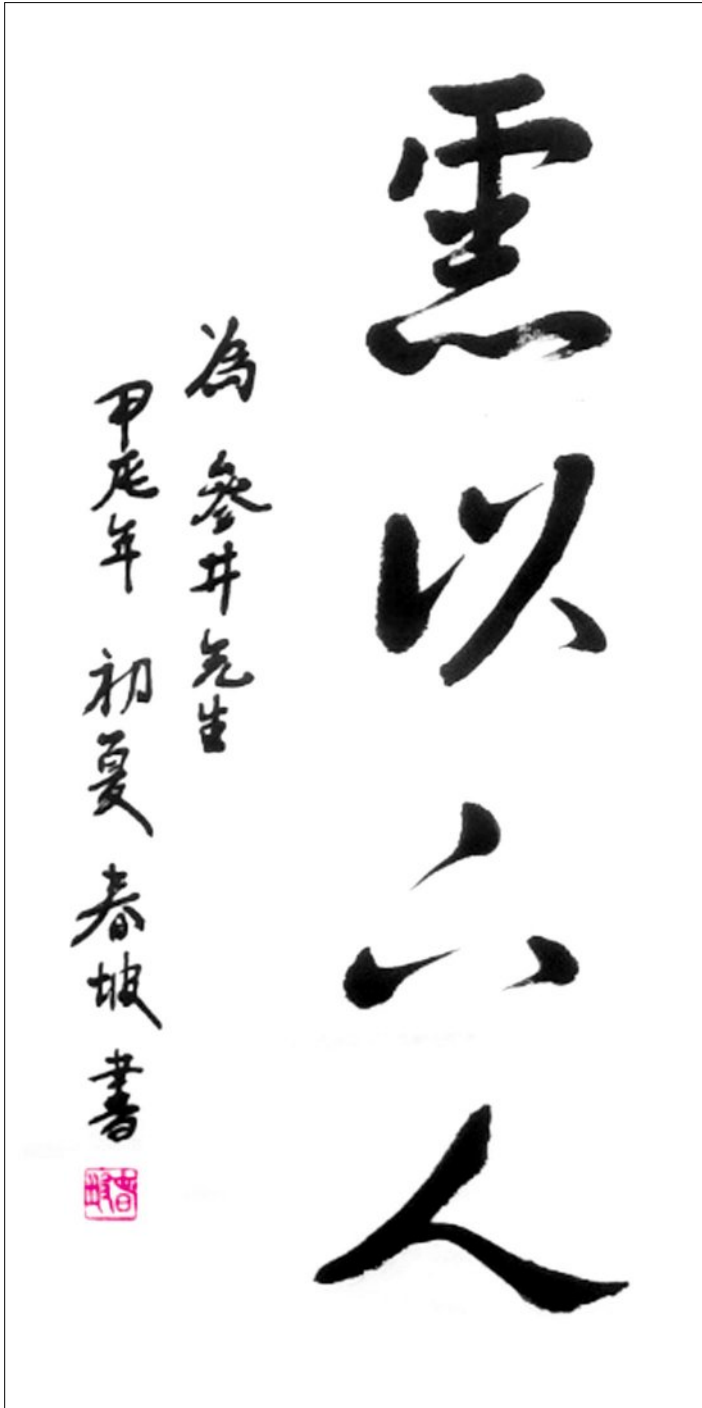
南岡 梁東昌



疆爲善而已矣



春坡 李根千



慮以下人



參井 全振潑



不 暝 眩
不 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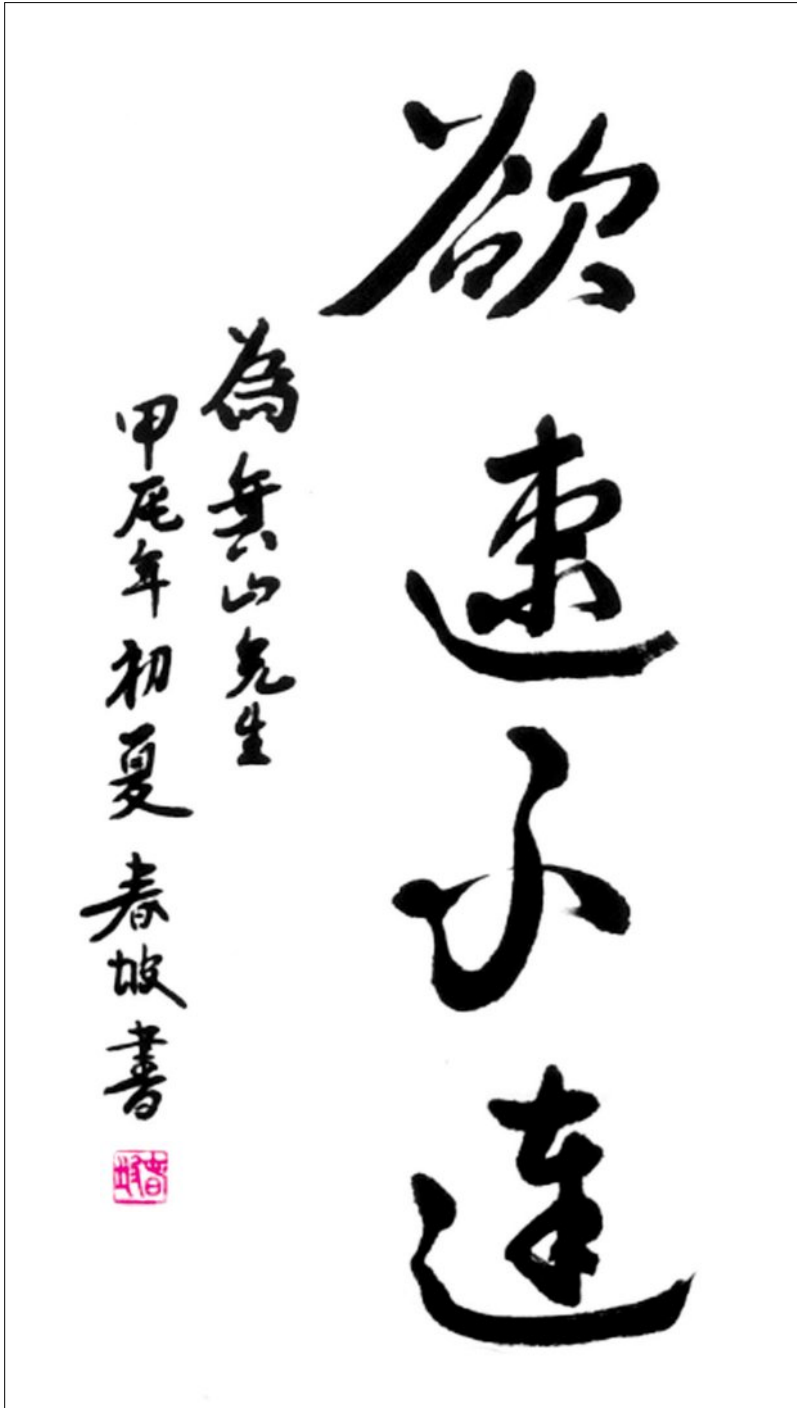
聽海軒



不暝眩不瘳



聽海軒 韓 相 皓



欲速不達



箕山 洪昌珍

能近取譬

為黃英愛先生

甲戌年初夏春坡書



能近取譬



夏雪 黃英愛

수채화 교실



• 지도강사 : 김영덕

• 수료자 : 권기복 김태리 쓰까호 김정순 양순옥 양신자 오은영 우정임
윤현숙 이도우 전인경 홍영희 김미동 김민경 박경이 박순남
박인숙 백동수 심정희 유철호 윤월자 주화진 최명희 최선녀
최지연 허성숙



길위의 인생



지도강사
김 영 덕



시골풍경



권 기 복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김 두 원



천년의 세월



김 미 동



꽃중에 꽃



김민경



기다림



김진미



미소



김 태 리



동행



박 경 이



기다림



박 순 남



농촌풍경



박 인 숙



여유



백 동 수



시골길



양 순 옥



가을여행



윤 현 숙



결실

오 은 영





돼지4형제



스즈끼 나호코



꽃길



심 정 순



단풍



심 정 희



옛고향집



양 신 자



들녘



우 정 임



서핑



유 철 호



그리움



윤 월 자



겨울밤사이

이 도 우





겨울



전 인 경



해바라기



최 선 녀



어반여행



최 지 연



코스모스



홍영희

한국화 교실



• 지도강사 : 조정승

• 수 료 자 : 권순영 김민심 김순희 박문희 박상호 양신자 윤혜정
이상순 이성열 장은심 임경수 김명미 변대환 신동우
여정수 유철호 윤길중 윤춘목 이근천 최종봉 황문복



속초제1경 영금정, 70호, 장지 수묵담채, 2023



지도강사
호정 조 정 승



제주의추억,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4



소화 김 영 미



하조대 일송,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금아 변 대 환



비폭운해,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4



총암 신 동 우



수류청정, 한지, 수묵담채, 20호, 2024



예향 어 정 수



질주, 한지, 수묵담채, 102023



예산 유철호



여름날의 추억, 한지, 수묵담채, 15호,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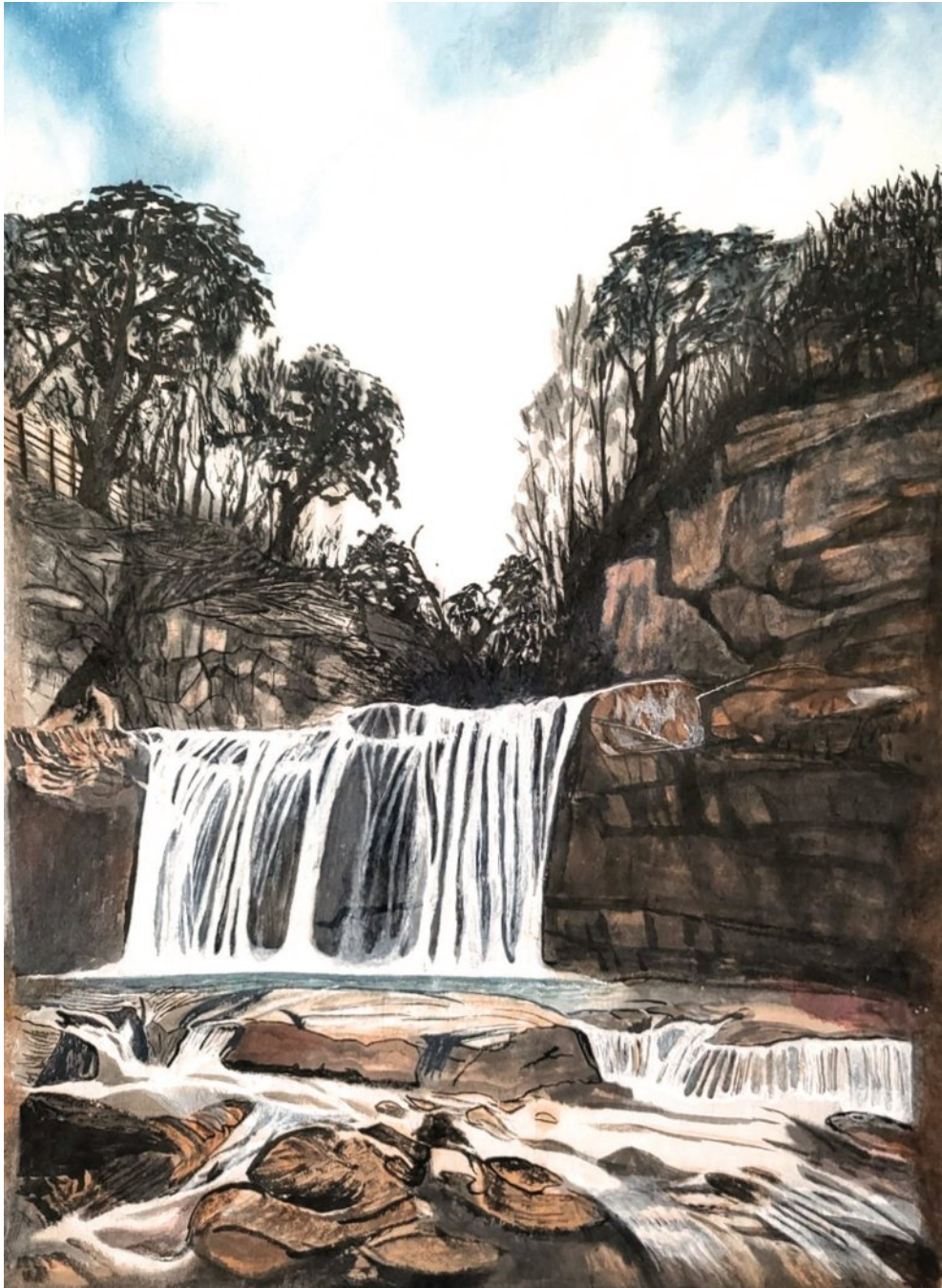
북양 윤길중



단양에서...,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4



현산 윤 춘 목



김천 장전폭포,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4



춘파 이근천



건조장, 한지, 수묵담채, 15호, 2024



원재 최 종 봉



성하운폭,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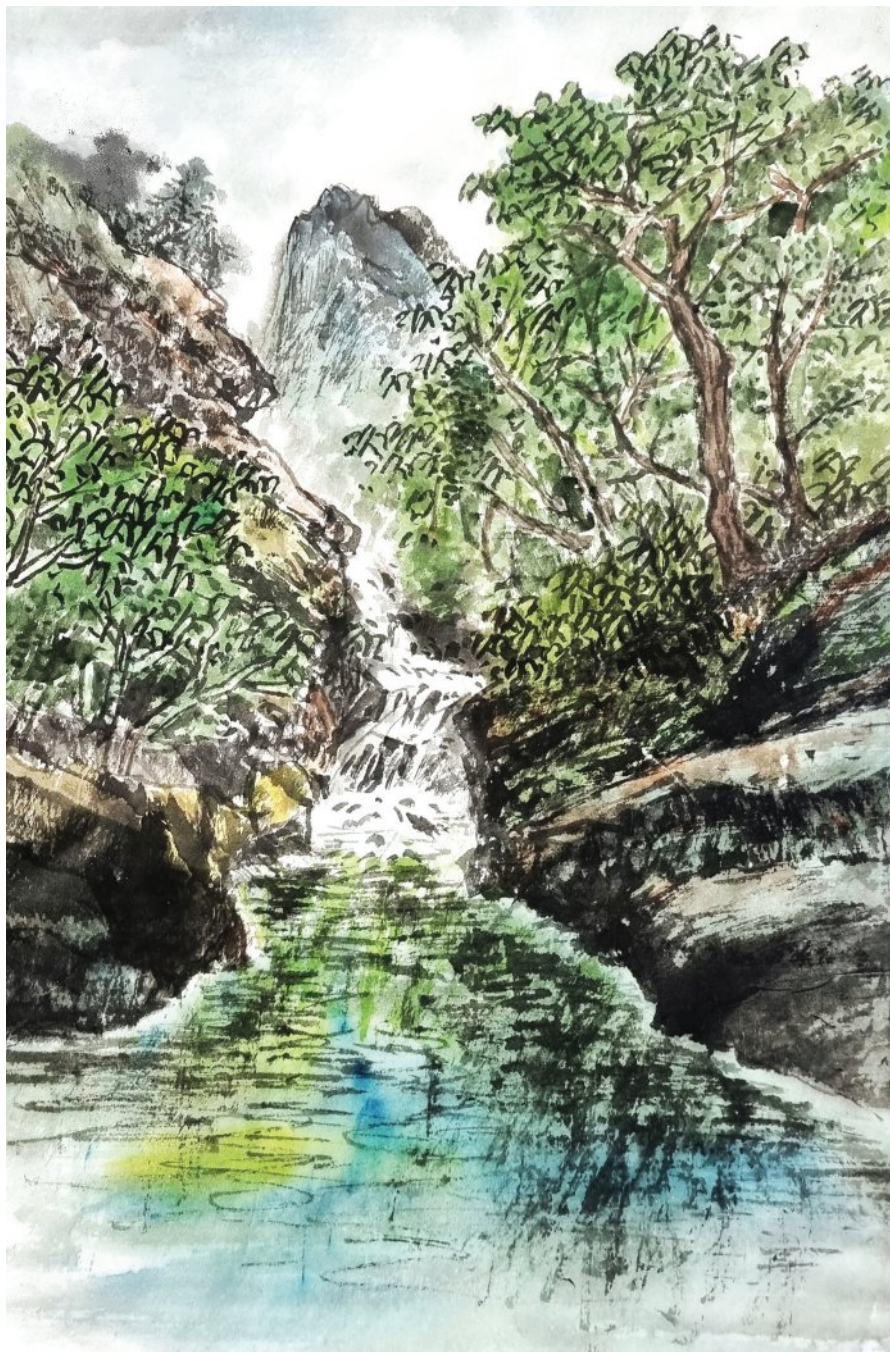
석화 황 문 복



봄날,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4



현담 권순영



주전골, 수묵담채, 10호, 2023



김민심



노송,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소해 박 문 희



가을, 한지, 수묵담채, 40호, 2024



박 상 호



솔섬,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4



양 신 자



솔바람,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4



윤 혜 정



국화바구니,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4



이 성 열



은행나무, 한지, 수묵담채10호2024



임 경 수



향리,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4



이 상 순

민화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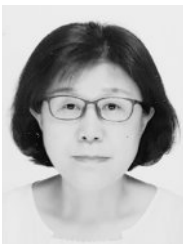


• 지도강사 : 정복자

- 수료자 : 김숙경 박연위 신미숙 임소현 임은별 장옥래 전현서 조연숙
김경희 김금희 노복현 방기환 양영철 오은영 오인애 음장호
이영주 장영랑 전명자 천미랑 최현식 홍순혜



일월부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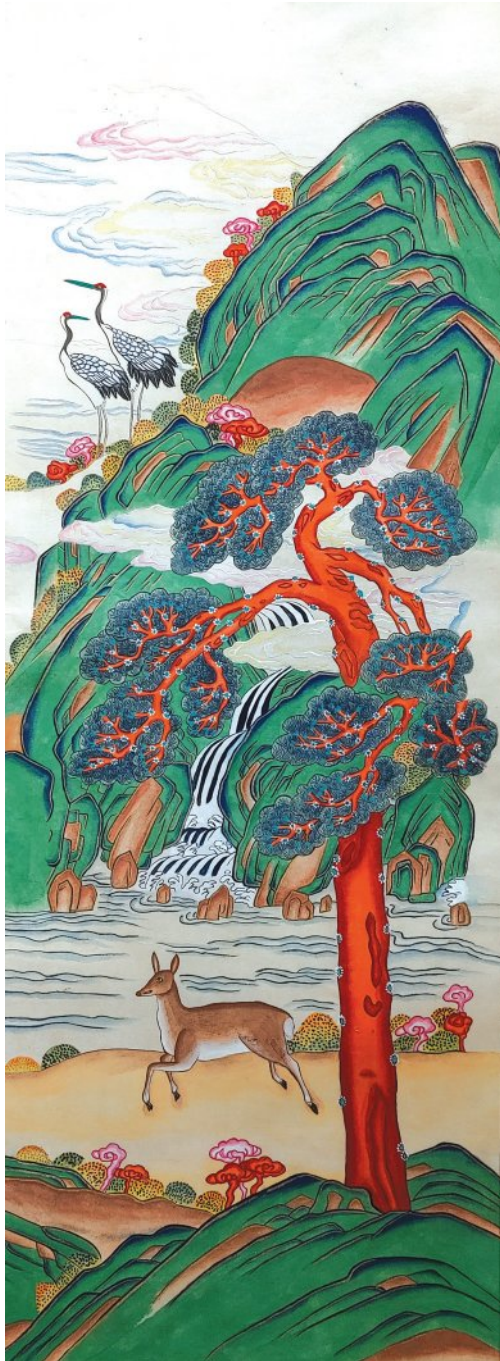
지도강사
정복자



삼여도(三餘圖)



김 경 희



장생도



김 경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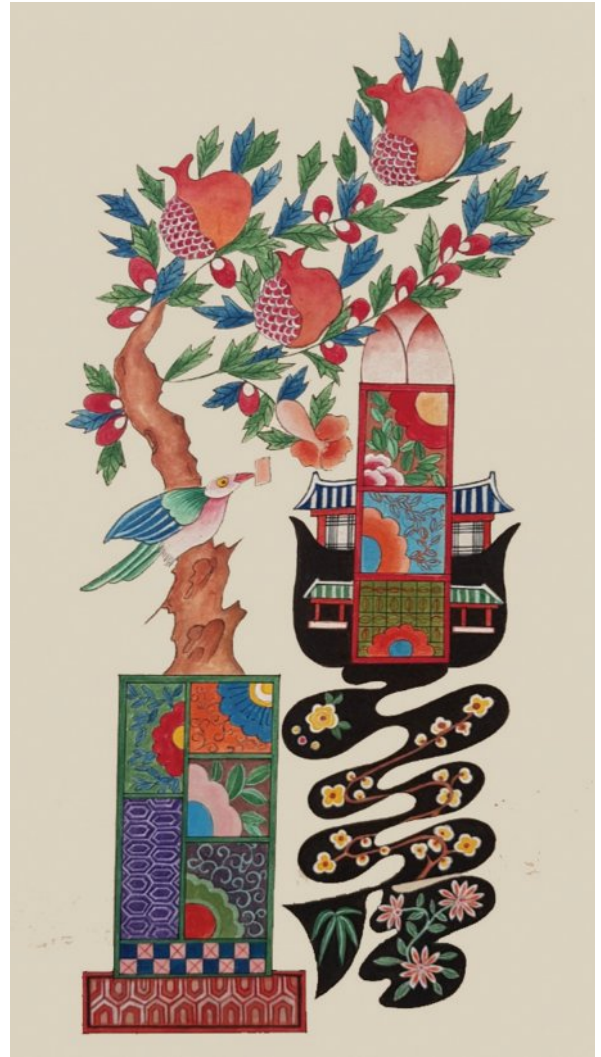
달과매화



김 숙 경



문자도



노복현



궁중모란도



박 연 위



청룡(서각)



방 기 환



일월오봉도



신 미 숙



일월동하군봉도



양 영 철



연화도

오 이 영





화조도



오 인 애



책거리

음 장 호





군학도



이 영 주



연화도



임 소 현



까치호랑이



임 은 별



초충도



장영랑



연과 오리



장 옥 래



모란도



전 명 자



약리도



전 현 서



모란도



조 연 숙



화병도



천 미 랑



절지도



최 현 식



일월화조도



홍 순 혜

인두화 (우드버닝) 교실



• 지도강사 : 조혜성

• 수료자 : 김미동 박우찬 신동빈 유철호 이경숙 이상완 이인옥
정용환 조현숙 허성숙



소나무여신 95x46(cm)



지도강사
윤정 조혜성



단짠 30x41(cm)



해풍 김 미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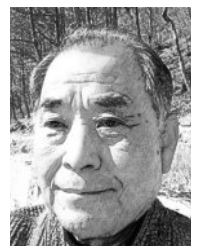
적토마 59x39(cm)



박 우 찬



환어행렬도 118x5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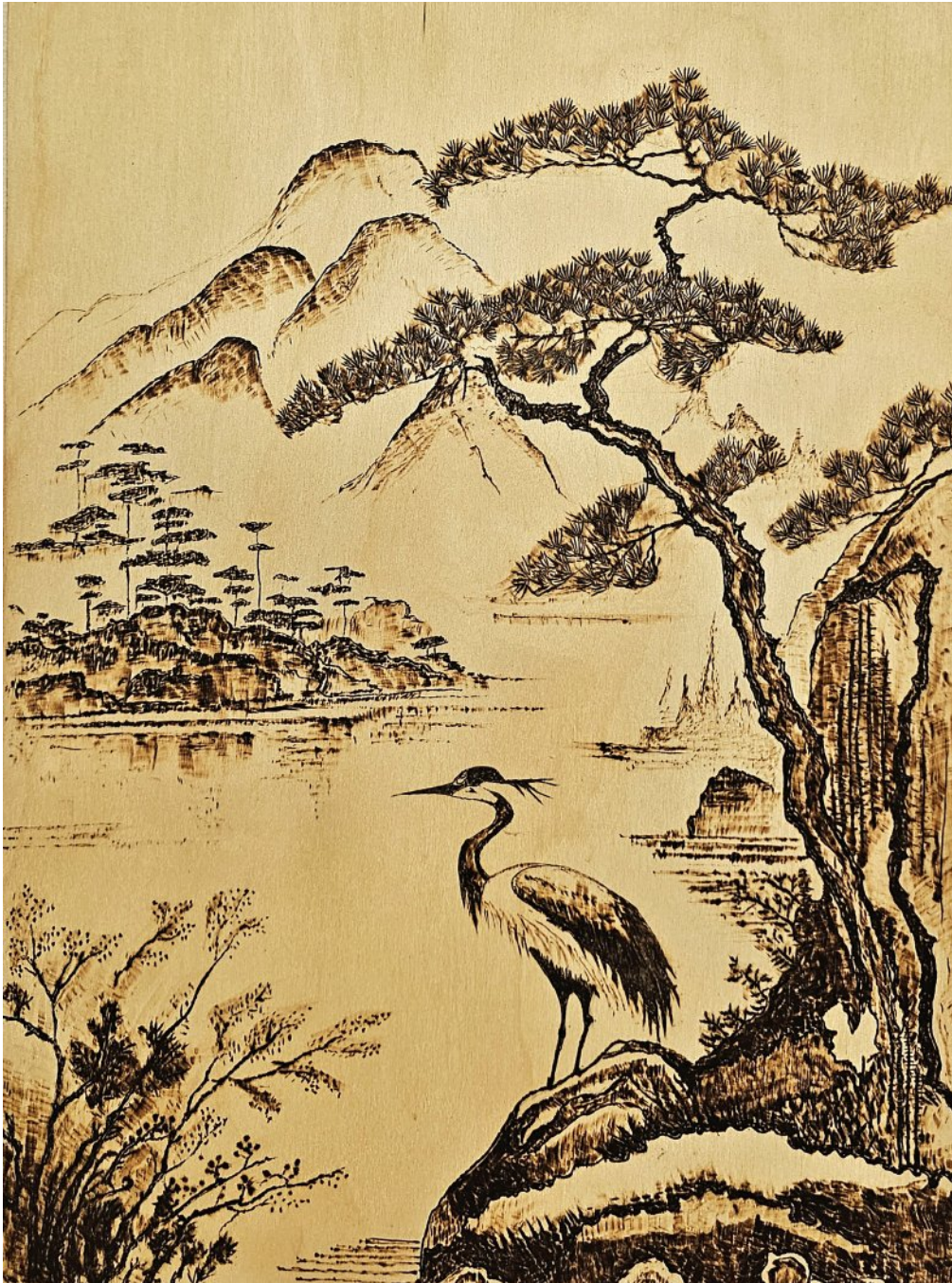
신 동 빈



서핑 40x31(cm)



유철호



계곡의아침 41x30.5(cm)



이 상 완



밭갈이 41x30.5(cm)



정 용 환



항아리



조 현 숙 (대해스님)

2024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발행일 : 2024년 11월

발 행 : 양양문화원

주 소 :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14-5

전 화 : 033) 671-8762

